

어휘적 중의성 문장 발화 시 신경언어장애인의 운율 특성

The Prosodic Characteristics of Utterance of Sentences with Ambiguous Word in Patients with Neurogenic Communication Disorders

이 명 순¹⁾ · 권 도 하²⁾

Lee, Myoung Soon · Kwon, Do H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prosody of utterance of ambiguous sentences in patients with neurogenic communication disorders. Ambiguous words on which prosody may have an impact were used to investigate this matter. The characteristics of tone duration, pitch and intensity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prosody in patients with lesions in the left or right hemisphere and normal controls. The whole process was recorded using a Praat 4.3.14 and for statistical analyses, two-way Anova and multiple comparative analyses were carried out using SPSS10.0 for Window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length of vowel in homograph in Korean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meaning and the duration of vowel was the longest in patients with lesions in the left hemisphere. There was agreed that they had problem of timing of prosody(Danly & Shapiro, 1982). On the other hand, there found that patients with lesions in the right hemisphere had deficiency of changeability in pitch. Among various acoustic parameters, this study focused on the duration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suprasegmental characteristics of prosody. More acoustic paramete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future studies.

Keywords: ambiguous words, tone, duration, pitch, homograph

1. 서론

중의성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언어학적 현상이다. 문법학자와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중의성을 언어에서의 본질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언어 사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고 해석의 다양성' 또는 '의미의 다양성'으로 정의하였다(엄홍석, 2003). 해석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언어학적 요인으로는 두 가지 이상의 완전히 다른 의미에 의한 혼란을 초래하는 중의성과 명료하지 않는 의미로 모호함을 줄 수 있는 애매성이 있다.

중의성의 해소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에 의해 대부분 자연스럽게 해소되는데 어휘의 중의성은 대체로 수식어나 서술어 등 문맥적으로 해소된다. 중의성 문장의 해소와 운율과의 관계에 대

한 연구로는 중의성이 운율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권재일(1997) 등의 연구와 섬의 위치(박종갑, 2001)와 강세(임홍빈, 1978) 등과 관련 된다는 연구들이 있다. 음향학적으로 F0 변화보다는 지속시간이 중의성의 해소와 관련된다고 한다(Edmonds et al., 2006; Scott, 1982). 원칙적으로 비성조 언어인 한국어는 중국어와 타이어에서처럼 운율 자체가 어휘의 의미를 결정짓지는 않는다. 표준발음법과 국어사전에서는 이러한 장단을 표시하고 있지만 한국어에서 '장단'이라는 운율적 특성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보는 견지(이현복, 2000; Ko, 1988)와 현존하고 있다고 보는 견지(조성문, 2001)가 분리되어 있다.

대뇌와 의미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의미 재인과 선택 및 유지에서 좌하전두회, 좌상측두회 뿐 아니라 우반구의 영역들도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Bookheimer, 2002). 이와 유사하게 중의성 의미 처리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좌반구의 영역 뿐 아니라 우반구의 영역들이 기능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Chan et al., 2004; Beeman, 1993). 우반구 손상 장애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언어장애라고 일컫지는 않으나 언어적 결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휘적 중의성과 구조적 중의성을 처리하는 신경계의 반응에서 흥미로운 점은 의미의 선택 과정에서 우반구가 관여하며 우반구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지만 의미의 선택 및 억제와

1) 대구대학교, flash-on@hanmail.net, 교신저자

2) 대구대학교, dhkwon210@hanmail.net

접수일자: 2009년 2월 11일

수정일자: 2009년 3월 12일

게재결정: 2009년 3월 15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Beeman, 1993).

대뇌 손상과 관련한 운율 연구에서 우반구 손상후 단음도 구어나 실운율증(aprosoody)의 신출이나 피치 지각이 좌반구보다 우반구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Milner, 1962). 그러나, 운율이 우반구만의 특성으로만 보지 않고 언어학적 수준의 운율은 어느 정도 좌반구에 편재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Pell, 1998; Behrens, 1985). 특히, 좌반구 손상 후 운동성 실어증(motor aphasia)에서 나타난 운율 장애는 시간적인 운율 장애(ill-timed prosodic)의 특성을 보인다(Danly & Shapiro, 1982).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 연구는 좌반구와 우반구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언어장애인 집단과 정상적인 집단 간에 어떤 운율적 요소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의성 어휘에 대한 의미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운율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는 음향학적 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고 중의성 의미해소와 운율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알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대상자

대상자들은 대구 경북권에 거주하고 4곳의 준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신경 전문 의사의 추천한 52명의 좌반구 또는 우반구 뇌손상이 있는 뇌졸중 환자에게 K-WAB을 실시하였다. 이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언어능력(읽기와 이해력)을 가진 좌반구 병변 대상자 8명, 우반구 병변 대상자 8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현저한 조음장애와 발화 중 비유창성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신경언어장애인 대상자 선정 시 검사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되었으며 대상자 선정은 1급 정언어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2명의 박사과정 연구자들이 시행하였다. 통제 집단은 신경학적 또는 정신과적 병력이 없고 병변 집단의 성별과 연령대를 맞추었다. 이 실험은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5월 10일 까지 이루어졌으며 병변 집단에 대한 개인별 정보는 <표1>에 제시하였다.

표 1. 병변 대상자 정보
Table 1. Information of Subjects

대상	성별	연령	병변	언어 지수	발병기간
1	M	53	Lt. basal ganglia	88.8	12개월
2	M	53	Lt. pons	71.0	6개월
3	M	44	Lt. temporal	84.4	6개월
4	M	47	Lt. MCA infarct	64.7	5개월
5	F	41	Lt. MCA infarct	66.0	6개월
6	F	49	Lt. basal ganglia	90.0	6개월
7	F	56	Lt. basal ganglia	63.5	10개월
8	F	53	Lt. basal ganglia	56.2	6개월
9	M	48	Rt. basal ganglia	83.4	6개월
10	M	56	Rt. MCA infarct	92.3	7개월
11	M	40	Rt. basal ganglia	88.8	7개월
12	M	53	Rt. white matter	94.7	6개월
13	F	69	Rt. basal ganglia	72.9	6개월
14	F	42	Rt. basal ganglia	91.0	6개월
15	F	68	Rt. white matter	75.9	6개월
16	F	45	Rt. basal ganglia	95.0	5개월

*MCA: middle cerebral artery

2.2 실험자료

중의성 어휘 선정 시 국어사전과 일상과 각종 미디어에서 신속하게 들을 수 있는 것들로 구성하였다. 실험자가 어휘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하면 대상자는 ‘그것은 _____ 입니다’의 전이구에 해당 어휘가 삽입된 문장을 읽었다. 실험 문장은 모두 13쌍의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실험 문장들은 22x15.5cm의 카드에 개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글자는 진한 명조체, 폰트 48, 1x1cm로 프린트하였다.

2.3 구어샘플 수집 및 분석

모든 항목들의 구어 샘플들은 Praat 4.3.14(Boersma & Weenink, 2005)를 이용하여 녹음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녹음에 앞서 두 번의 연습을 실시하고 세 번의 발화를 녹음하였다. 녹음시 표본 추출률은 22,050Hz, 주파수 대역이 20-20,000Hz인 마이크로폰(Philips SBC HG 100)으로 녹음하였고 마이크로폰과 입과의 거리는 약 10-15cm로 유지하였다. ‘단’과 ‘장’어휘 들은 검사자가 제시하는 의미 설명에 대한 화자의 반응으로 산출되었으며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은 대상자들이 샘플 녹음 전에 각 어휘들에 대한 의미를 모두 알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은 3번의 발화 중에서 가장 안정된 것 1 개를 실시하였으며 5번 이상의 청취후 모음구간 만을 분리하여 지속시간과, 피치변화 범위 및 성조를 구하였다. 피치변화는 모음 구간 내에서 최고 피치와 최저 피치를 구하였으며 성조는 모음 구간 내에서 변화는 음조의 높낮이 빈도를 구하였다. <그림1>과 <그림2>는 ‘먹는 과일의 사과’과 잘못해서 용서를 비는 사과’로서 ‘단’과 ‘장’이 실현되어 산출된 스펙트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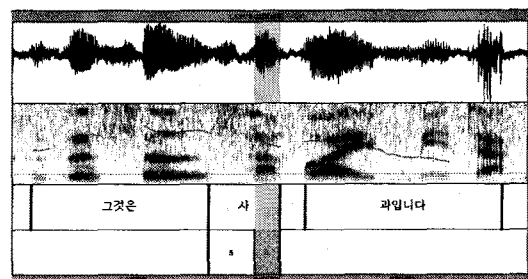


그림 1. ‘단’이 실현된 어휘적 중의성 문장
Figure 1. Spectrogram of short vowel in sent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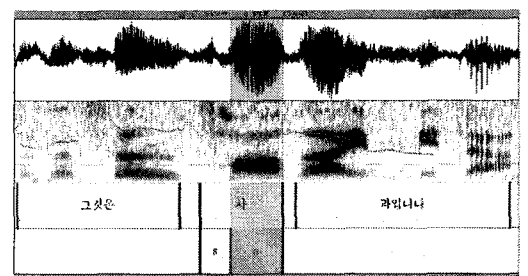


그림 2. ‘장’이 실현된 어휘적 중의성 문장
Figure 2. Spectrogram of long vowel in sentence

2.4 신뢰도

각 검사 항목의 25%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음향학적으로 분석하고 분석자간 및 분석자내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분석자간 신뢰도는 피치와 지속시간, 성조에 관한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829, .998, .994로 나타났으며 분석자내 신뢰도에 대한 상관계수는 .986, .997, .829, .989의 일치도를 보였다.

2.5 통계 처리

대상자들 산출한 28개씩의 문장에서 동음이의어 어휘의 첫 음절 모음에 대한 지속시간과 피치변화 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모음의 성조 빈도를 나타내었다. 의미(중의성의 두 가지 의미)의 변화에 따라서 종속 변수들이 변화하고 있는지와 그 변화가 집단과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SPSS 10.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원변량 분석에서 Mauchly의 구형성 검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Greenhouse-Geiser 검정을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를 실시하였다.

3. 결 과

3.1 지속시간 비교

모음 지속시간에 대한 평균은 좌반구 병변 집단의 ‘장’이 실현된 어휘에서는 176ms이며 ‘단’이 실현된 어휘는 160ms로 나타났다. 다른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비교했을 때, 좌반구 병변 집단의 지속시간이 가장 길고 표준편차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음 어휘와 단음 어휘 지속시간의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큰 것은 정상 집단이며 차이가 가장 적은 집단은 좌반구 집단이다.

표 2. 모음 지속시간 (ms)
Table 2. Duration of vowel

집단	장		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좌반구	176	86	160	84
우반구	138	52	113	45
정상	146	52	103	37
합계	154	67	126	64

어휘에 대한 변량 분석 결과 장단에 따라서 지속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F(1, 320)=68.498, p<.001)였고 집단 간에도 지속시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2, 320)=13.503). Scheffé 검정을 실시한 결과 좌반구 병변 집단과 우반구 병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 좌반구 병변 집단과 정상 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장단과 집단 간에 상호작용이 나타났다(F(2, 320)=10.571, p<.01). 이에 대한 결과를 <표3>에 제시하였다.

표 3. 모음 지속시간에 대한 변량 분석
Table 3. Two-way ANOVA on duration of vowel

변량원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수준
장단	1	0.110	68.498	.000***
집단	2	0.085	10.571	.001**
장단 × 집단	2	0.012	6.864	.000***

p<.01, *p<.001

장단과 집단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휘의 ‘장’, ‘단’을 분리하여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이 실현될 때, 집단간 (F(2, 326)=10.779, p<.001)로 ‘단’이 실현될 때는 (F(2, 326)=26.894, p<.001)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3.2 피치의 비교

장단이 실현되는 음절에서 피치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최고 피치와 최소 피치 간의 변화 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4>에 제시하였다.

표 4. 모음 지속시간에 대한 변량 분석
Table 4. One-way ANOVA on duration of vowel

변량원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수준
장	2	0.0451	10.779	.000***
단	2	0.0946	26.894	.000***

***p<.001

장단에 따른 피치의 변화는 정상 집단의 평균이 19.224Hz(장)와 17.801Hz(단)으로 대체로 크고, 우반구 병변 집단이 15.327Hz(장)와 15.018Hz(단)로 가장 작았다.

이에 대한 변량 분석 결과를 <표5>에 제시하였다. 장단에 따른 피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집단에 따른 피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 318)=3.258, p<.05). 이에 대한 Scheffé의 사후검정 결과 우반구 병변 집단과 정상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장단에 따른 피치변화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장단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없었다.

표 5. 피치 변화 (Hz)

Table 5. Range of pitch

집단	장		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좌반구	18.402	14.150	18.524	14.277
우반구	15.327	9.179	15.018	12.990
정상	19.224	14.242	17.801	16.736
합계	17.671	12.842	17.138	14.785

3.3 장단에 대한 성조 분석

장단에 따른 성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장단에 따른 성조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 장단이 실현되는 첫음절에 성조를 분석한 결과 성조는 ‘저고, 고저, 저고저, 고저고, 저고저고, 고저고저, 저, 고’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빈도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모든 집단이 ‘저고’와 ‘저고저’ 성조의 빈도가 높고 좌반구 병변 집단은 ‘고저’와 ‘고저고’와 같은 성조에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표 6. 피치 변화에 대한 변량 분석
Table 6. Two-way AVONA on range of pitch

변량원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수준
장단	1	23.661	0.206	0.650
집단	2	821.484	3.258	0.040*
장단 × 집단	2	65.384	0.5698	0.566

* $p < .05$

표 7. 성조의 변화에 대한 빈도
Table 7. Frequency on tone

성조		좌반구	우반구	정상
저고	장	18	32	36
	단	9	32	36
저고저	장	27	39	40
	단	41	38	40
저고저고	장	3	5	0
	단	2	2	0
고저	장	32	13	12
	단	44	19	16
고저고	장	15	12	13
	단	7	9	11
고저고저	장	12	9	8
	단	7	9	11
저	장	3	1	0
	단	1	1	0
고	장	0	0	1
	단	0	0	0
기타		3	3	0
합계		224	224	224

4. 토 의

이 연구는 좌반구 및 우반구 병변 대상자들과 정상 대상자들에 대한 중의성 어휘 및 문장에 대한 언어학적 운율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장단에 따른 지속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장단에 따라 지속시간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는 한국어 어휘에서 장단과 고저가 존재한다는 연구와 일치하며(조성문, 2001). 장단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몇몇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 반대되는 것이다(이현복, 2000). 집단별로 지속시간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좌반구 병변 집단에서 가장 길게 나타났기 때문에 좌반구 병변의

시간적 결함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좌반구 병변 집단이 지속시간에서 결함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추측을 두 가지 정도 할 수 있다. 첫째, 두드러진 조음 오류가 없다하더라도 좌반구의 병변은 조음기관의 움직임에 대한 연속성에서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고 둘째, 장단이 중국의 성조(사성)처럼 단어의 의미로 처리된다면 언어능력이 편재화된 좌반구의 기능부전 때문으로 추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러한 추론을 입증하는데 제한이 있고 이는 추후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동음이의어로 인한 어휘적 중의성 문장의 어휘의 지속시간은 좌반구 병변 집단의 두드러진 결과로 나타났으며 좌반구 병변이 시간적 수평력에 결함을 나타낸다는 Van Lanker & Siditis(1992)의 연구 결과에 부합된다.

장단에 따른 피치 변화에 대한 변량 분석 결과 피치 변화의 범위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반구 병변 집단과 정상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우반구 병변 집단이 피치 변화에서 제한된다는 주장(Behrens, 1988)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피치 변화의 범위가 장단에 따라 유의하지 않았으며 피치 변화 범위는 중의성 해소와 관련이 없었다. 이는 Edmonds 등(2006)의 주장처럼 지속시간이 피치 변화보다 중의성을 해소와 관련한 일관된 요소라는 주장과 일치한다(Scott, 1982).

장단에 따라 집단간 성조에 대한 특별한 경향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우반구 병변 집단과 좌반구 정상 집단은 ‘저고’와 ‘저고저’의 성조 빈도가 높은 반면 좌반구 병변 집단은 ‘고저’의 성조에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다만 정상집단보다 모음 구간에서 더 많은 성조의 변화를.

그러나 이 연구는 대상자 수와 세밀한 병변의 위치 고려라는 점에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와 결과에서 도출된 추론을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또한, 운율의 역동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음향학적 매개 변수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신경언어장애인들 운율 특성에 대한 이해가 더욱 확장되고 치료중재 시 언어학적 운율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Beeman, M. (1993). Semantic processing in the right hemisphere may contribute to drawing inferences during comprehension. *Brain and Language*, Vol.44, pp.80-120.
 Behrens, S. (1988). The Role of the right hemisphere in the production of linguistic stress. *Brain and Language*, Vol.33, No.1, pp.104-127.
 Boersma, P., & Weenik, D. (2005). "Praat", <http://www.fon.hum.uva.nl/praat/>.
 Bookheimer, S. (2002). Functional MRI of language: new approaches to understanding the cortical organization of semantic

processing. *Annual Reviews of Neuroscience*, Vol.25, pp.151-188.

Chan, A. H. D., Liu, H. L., Yip, V., Fox, P. T., Gao, J. H., & Tan, L. H. (2004). Neural systems for word meaning modulated by semantic ambiguity. *NeuroImage*, Vol.22, pp.1128-1133.

Cho, Sung-moon. (2001). An experimental phonetic analysis for the prosodic features in Korea. *Korean language culture*, 20, pp.29-44.

(조성문. (2001). "국어의 운율적 자질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분석", *한국언어문화*, 20, pp.29-44.)

Danly, M., & Shapiro, B. (1982). Speech prosody in Broca's aphasia. *Brain and Language*, Vol.16, pp.171-190.

Edmonds, A. C., Killam, J., & Liljestrand, A. (2006). Prosody and production of structurally ambiguous phrase. *Indian University Linguistic Club working papers online*, Vol.6, No.5, pp.1-43. <https://www.indiana.edu/~iulcwp/>

Ko, Do-Heung. (1988). A spectrographic investigation of vowel duration in Korean. *A festschrift for Dr. Mok-Sang Yuh*, pp.51-62.

Kwon, Jae-il, Kim, Youn-Han, Moon, Yang-soo, Nam, Seungh-ho, Jun, Jong-ho. (1997). A study on the interface between syntactic and prosodic structur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modes of ambiguity resolution. *Linguistics*, Vol.20, pp.59-112.

(권재일, 김윤환, 문양수, 남승호, 전종호. (1997). "통사구조와 운율 구조의 상관성 연구", *언어학*, 20, pp.59-112.)

Van Lancker, D., & Sidtis, J. J. (1992). The identification of affective prosodic stimuli by left and right hemisphere damaged subjects: All errors are not created equal.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Vol.35, pp.963-970.

Lee, Hyun-bok (2000). standard phonation in Korean(revision). Educational Science. (이현복. (2000). 개정판 한국어의 표준발음. 교육과학사.)

Milner, B. (1962). Laterality effects in audition. In Mountcastle, V. B. (ed.), *Interhemispheric relations and cerebral dominance* (pp. 177-195).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Park, Jong-gab. (2001). On the ambiguity of Korean negative sentences(2). *Linguistics & Literature*, Vol.74, pp.1-20.

(박종갑. (2001). "국어 부정문의 중의성에 대하여(2)-중의적 의미 해석과 관련된 인식적 편향성을 중심으로", *어문학*, 74, pp.1-20.)

Pell, M. D. (1988). Recognition of prosody following unilateral brain lesion: influence off unctional and structural attributes of prosodic contours. *Neuropsychologia*, Vol. 36, pp.701-715.

Scott, D. (1982). Duration as a cue to the perception of a phrase boundary.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Vol.71, pp.996-1007.

Um, Hong-suk. (2003). On the ambiguity of language. *Education of language & literature of Francais*, Vol.16, pp.249-280.

(엄홍석. (2003). "언어의 중의성에 관하여", *프랑스 어문 교육*, 16, pp.249-280. pp.249-280.)

• 이명순 (Lee, Myoung Soon)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대구 대명 3동 2288번지
 Tel: 053-650-8273.
 Email: flash-on@hanmail.net.
 관심분야: 신경언어장애
 대구대학교 박사과정 졸업

• 권도하 (Kwon, Do Ha)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대구 대명 3동 2288번지
 Tel: 053-650-8273.
 Email: dhkwon210@daegu.ac.kr
 관심분야: 말더듬,
 1988-현재 대구대학교 교수

부록. 중의성 어휘

어휘 설명(실험자)	읽기(대상자)
이것은 잘 달리는 동물입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거울에 하얀 결정체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 : 입니다.
이것은 꽃에서 꿀을 모으는 곤충이고 사람을 쏘기도 합니다.	그것은 벌 : 입니다.
이것은 가을에 따는 과일입니다.	그것은 사과입니다.
결혼한 여자를 뜻합니다.	그것인 부인입니다.
배우들이 드라마의 대본에 맞춰 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연 : 기입니다.
이것은 안부를 전하는 말이나 글을 뜻합니다.	그것은 소식입니다.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 : 원입니다.
물건을 담는 그릇을 뜻합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잘 하는 재주나 특기입니다.	그것은 장기입니다.
약물을 몸 안에 넣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주 : 사입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사고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그것은 모 : 자입니다.
병을 치료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것은 의사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말 : 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입니다.
이것은 어린이가 잘못했을 때 손을 들고 오랫동안 서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벌입니다.
이것은 친구와 싸우고 나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 : 과입니다.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 : 인입니다.
이것은 불을 피웠을 때 올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연기입니다.
이것은 밥의 양을 적게 먹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소 : 식입니다.
친분이 가깝지 못하고 멀어진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소원입니다.
씩씩하고 굳센 기운을 뜻합니다.	그것은 용 : 기입니다.
서양의 체스처럼 상대방의 장군을 쓰러뜨리는 놀이입니다.	그것은 장 : 기입니다.
술에 취했을 때 나타나는 못된 버릇을 뜻합니다.	그것은 주사입니다.
이것은 차가 충돌하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 : 고입니다.
이것은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자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합니다.	그것은 의 : 사입니다.